

녹두 논 재배 전 과정 기계화 기술 정립...재배 확산기술 보급 박차

- 10월 1일, 경북 예천군 녹두 재배단지에서 열려

- 녹두 ‘채흔’ 신품종, ‘자동 조향 정밀파종’, ‘비산 저감 드론 방제’ 기술 등

※ 일자, 장소 : 2026.10.1.(목), 경북 예천군 지보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월 1일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녹두 논 재배 기계화 현장 연사회’를 열고, 재배 확산과 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연사회에서는 논 재배 및 기계화에 적합한 녹두 신품종 ‘채흔’과 생산기술을 소개하고, 파종, 방제, 수확 작업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신품종의 우수성과 기계화 재배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녹두 신품종 ‘채흔’은 파종 후 줄기가 곧게 서서 자라는 ‘직립형 초형’으로 비바람으로 인한 쓰러짐에 강하다. 특히 꼬투리 터짐이 적고, 알곡 익는 시기가 같아 범용 콤바인을 이용한 일시수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 보급종 ‘산포’ 품종보다 수확량은 13% 많고, 수확시기도 약 9일 정도 빠르다.

이날 전시된 자동 조향장치를 이용한 정밀파종 기술은 기계를 운전하는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직진 주행으로 경지이용률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

아울러 ‘비산저감 공기 흡입형 노즐’이 부착된 무인기(드론)로 방제하는 작업을 시연하며 스마트 방제 기술을 입증했다. 농약 흘날림(비산)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을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제시했다.

이어 범용 콤바인을 이용한 녹두 수확 작업을 선보이며 기존 수작업 대비 노동력 절감 효과를 공유했다. 수확 시간 단축으로 영농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계화 기술을 통한 농가 경영 효율화 가능성도 진단했다.

이날 연사회를 지켜본 녹두 재배 농업인 김영균 대표(한국에코팜)는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논 타작물 이모작’ 사업을 통해 ‘채흔’ 품종을 처음 재배했지만, 기계화 재배에 유리해 내년에는 녹두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노형일 국장은 “쌀 적정 생산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논에 벼 대신 심을 수 있는 식량작물 재배 기술과 기계화 적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녹두 논 재배 전과정 기계화 현장 연사회 일정

담당 부서 <총괄>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	책임자	팀 장	장제기 (063-238-1495)
		담당자	지도사	윤 송 (063-238-1500)
<공동>	국립농업과학원 발농업기계과	책임자	과 장	김병갑 (063-238-4041)
		담당자	연구사	이춘구 (063-238-4229)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책임자	과 장	고종민 (055-350-1210)
		담당자	연구사	추지호 (055-350-1245)

1

행사개요

- 일 시 : 2026년 10월 1일(목) 14:00~15:00
- 장 소 : 경북 예천군 지보면
- 주최/주관 : (주최) 농촌진흥청 (주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 * 협업 부서 : 국립농업과학원 발농업기계과, 농업로봇과,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 참석인원 : 100명 내외(농업인, 단체, 실무자 등)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 등 록	식량산업기술팀
14:00~14:10	10	- 개회식 및 인사 말씀	농촌지원국장
14:10~14:25	15	• 녹두 논 재배 주요 기술 ① 논 재배 및 기계화 적합 신품종 ② 논 이용 녹두 재배 기계화 기술 - 정밀파종, 비산저감 드론방제	- 국립식량과학원 발작물개발과 - 국립농업과학원 발농업기계과
14:25~14:50	25	• 녹두 재배 전과정 농기계 전시 및 연시 ① (파종) 자동조향 정밀파종 기술(연시) ② (방제) 비산저감 드론방제 기술(연시) ③ (수확) 범용콤바인 일시수확(연시)	
14:50~15:00	10	-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폐회	